

*시간 : 10분 내외

안녕하세요, 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죽음'을 주제로 이번 시간 발표하게 된 이해민입니다. 수차례의 사경회와 몇 개월에 걸친 연구시간을 통해, 그리고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창조론과 진화론이 세계관의 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세계관이란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민족성, 전통, 교육, 운명 따위를 기반으로 하며, 낙천주의, 염세주의, 숙명론, 종교적 세계관, 도덕적 세계관, 과학적 세계관 따위의 여러 견해가 있다.-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입장은 유신진화론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지난 시간 발표에서 유신 진화론을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지양한다는 우종학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를 세계관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과 이를 세계관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살펴봅시다. 그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고싶은 것이 아닌 다양한 견해를 듣고 생각해보며 사고의 확정을 도모하고자 준비한 발표이니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과 점진적 창조론자들과 같은 늙은 지구론자들은 창조 후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미 죽음의 현상들이 창조 세계 안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젊은 지구론, 즉 창조론자들은 이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조 이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엇갈린 두 주장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일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타락으로 받게 된 벌이자 절망적이며 무서운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4-15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새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초래하는 절망적이지 않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정말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의 과정 중 죽음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죄로인해 생긴 선택적 요소였다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 죽음의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죽음이 창조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창조 후에 있는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연적인 것이라면 긴 연대 이론이 가지고오는 타락 이전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그것은 젊은 지구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십억 년에 걸친 가공할 동물들의 죽음의 행렬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는 진화론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이에 반해 긴 연대 이론은 죽음이 창조의 필연적 요소이며 선한 창조 또는 선한 하나님의 속성에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반박을 합니다.

정말 흥미롭고도 탐구욕이 마구 솟아나는 주제가 아닌가요?!

창조와 죽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긴 연대이론에 따라 타락 전 죽음에 대한 신학적 변호를 제기한 입장을 소개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해의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총 아홉가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주장1: 죽음을 활용한 자연선택은 창조과정이다.

주장2: 첫 창조의 상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 상태와 다르다.

주장3: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죽음을 포함할 수 있다.

주장4: 보시기에 좋은 창조는 죽음을 포함하며, 죽음은 기능적으로 선하다.

주장5: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다.

주장6: 타락 이전의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 지나친 감정이입은 불필요하다.

주장7: 타락 전 동물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주장8: 타락 전 죽음의 긴 세월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 낭비가 아니다.

주장9: 최근 창조론은 이신론의 오류를 내포한다.

이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 다룰 내용은 주장1, 죽음을 활용한 자연선택은 창조과정이다-와 주장7, 타락 전 동물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무효화하지 않는다-입니다.

<주장1, 죽음을 활용한 자연선택은 창조과정이다>

죽음을 활용한 자연선택은 창조과정이다-라는 주장에서 자연선택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활동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시는 창조과정이라는 맥락이죠. 진화론에 따르면 자연선택은 새로운 생물창조를 가능하게 하며, 개체의 수를 조절하는 유용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선택은 모든 종류의 생물이 모두 충분히 살아가기에는 자원이 부족해 경쟁해 먼저 차지한 자가 살아남아 선택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9-30의 말씀은 자연선택의 방식을 필요로 할 만큼의 어떤 경쟁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풍성한 환경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의 말씀은 부족과 결핍 또는 빈곤의 상황에서 경쟁의 승자가 번식하여 번성할 것이라는 자연선택의 논리를 전혀 함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인 번성에 적합한 풍요와 안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장 7: 타락 전 동물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론과 관련한 주장입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면 죽음은 죄의 삯이 아닌 것이 되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죄의 삯을 치루는 대속의 죽음이 아닌 것이 된다는 주장에 엠버거 비판을 몇 가지 들어 합니다.

하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죽음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롬 5:12-13.) 그것이 인간이 아닌 동물의 죽음도 또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둘,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모든 피흘림이 다 속죄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타락 전 죽음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죄를 짓기 이전에는 피흘림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홍수 이전에는 폭풍우나 무지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락 전에도 피흘림은 있었고, 그 피흘림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셋, 그리스도의 속죄가 죽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모든 죽음이 다 죄와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의 방식이 반드시 죽음을 통한 것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엠버거는 웨슬리안 신학자 그리더(J.K. Grider)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방법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진실로 자유로우시다. 그는 다른 종류의 죽음이나 심지어는 죽음이 아닌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피조물이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속죄의 죽음이 죄의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타락하기 이전에 동물의 죽음이 반드시 죄와 연결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과연 죄의 삯일까요? 사람의 죽음이 죄의 삯이라는 것은 타락 전 동물의 죽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과격한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아니라면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동물의 죽음도 그러한가라는 논의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젊은 지구론자들은 동물의 죽음도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결과된 것으로 믿습니다.

반면에 늙은 지구론자들은 타락 전 동물의 죽음은 사람의 타락과 상관이 없다고 믿죠.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늙은 지구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거의 틀림없이 신학적 차이 때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엠버거 자신도 최소한 성경만을 살피다면, 인간의 죽음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결과는 비단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롬8:19-23)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의 진정한 근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니 보다 정확히 게 말해서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오랜 연대에 걸쳐서 동물들이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죽음도 당연히 존재하였다고 믿는 지질학적이고 화석연대기적 이론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지구론자들에 대한 늙은 지구론자들의 첫 번째 반론, 곧 동물의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들이 믿는 지질학적인 이론에 오류가 있는 한 타당성을 잃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출처 : 오래 전 창조론의 신학적 딜레마 : 타락 전 죽음 -
김병훈(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조직신학)**

을 참고해주세요! 제게 말해주시면 논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